

1900~1945년 나주의 중·소규모 한식상가와 일식상가의 변천연구

-나주면과 영산포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of Mid·Small Korean Commercial Area and Japanese Commercial Area in Naju City from 1900 to 1945

-Focused on Naju-myeon, Maju City & Youngsanpo-myeon

안 국 진 | Ahn, Kug-jin

정회원,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Abstracts

Existing research for store has been localized in that of Seoul area, and research for the Japanese style store built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has not been done properly owing to national sentiment.

This research established Naju that inland pillage is available along Yeongsan River after opening of Mokpo harbor. I will compare modernization developmental process of building of Korean style store with that of Japanese Style store, so obviously try to make clear the activities of modernization by linking social and economical change with Joseon merchants' life. I will try to light up the position of korean style store in Naju area in history of architecture by analyzing two styles of stores into urban architectural element, putting process of change in order and translating it according to flow of age.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restaurant stores and that of Japanese counterparts are rather relative. Whereas Japanese accumulated wealth through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the people of Joseon the former dynasty of present day Korea, the people of Joseon could not but be oppressed and depressed. On the other hand, while the dynamic liberation movements of Joseon merchants managed to develop based on the vitality that was growing ever more, Japanese chose to back down to some degree by exercising appeasing policy.

The efforts to take initiative by shattering off the submissive attitude can be found from the ability fostering movement, Gwangju students campaign and new construction or remodeling of hanok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as commercial building in the 1920s. The changing phase of the people breaking away from subjugated relation to subjective attitude can be found in the commercial districts.

Keywords

Modern, Wooden, Region, Naju, Youngsanpo

키워드

근대, 목조, 지역, 나주, 영산포

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1900년대 초, 일본은 반강제적으로 서구의 건축양식을 이식시켰다. 서구의 근대건축양식이 관공서의 건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서민들은 자신의 삶속에서 주거를 어떻게 건립하고 생활해왔는지 건축적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적·경제적 힘은 서민들에 있기에, 한국의 근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역사적 측면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방도시인 나주의 중소 상인들의 생활과 결부시켜 한식상가의 성립과 근대화되어 가는 발전과정을 일식상가와 비교함으로써 성격이 더욱 명백해 지리라 본다.

본 논문은 1900년~1945년 나주의 한식상가와 일식상가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건축사적 위치를 규명하는게 목적이다.

1.2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목포개항이후 영산강을 따라 내륙침탈이 가능했던 나주를 설정하였다. 나주 읍성안의 한식상가가 밀집했던 사매기 거리라는 기존의 구시가지와 영산포 포구를 중심으로 1900년대 들어 신시가지로 형성되는 일식상가거리를 조사하였다. 읍성내 한식상가의 경우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가가 몇 채 되지 않아 전수조사 하였다. 영산포 일식상가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확장으로 조만간 사라지게 될 상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포구주변 잘 남아있는 일식상가에 대해서는 선별 조사한다.

1.3 시기구분

나주지방 상가의 변화모습을 1900년부터 역사적사건에 따라 아래의 3시기로 구분하는데, 당시 나주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1900~1919년대 : 목포가 개항되고 나주의 영산포 浦口(포구)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정착한다. 일본인들은 자국의 주거와 상가를 영산포에 건립한다.

2) 1920~1929년대 : 1919년 3 1운동과 나주역에서 시작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은 극도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3) 1930~1945년대 : 세계 대공황으로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킨다. 조선을 전쟁의 전초기지로 병참기지

화 시키고, 식량과 군수물자를 수탈하가는 시기이다.

2. 나주의 상가형성

2.1 장시의 발생

경인년(성종1년, 1470년)에 흥년이 들면서 전라도에 상점이 열었는데 그 이름을 場門(장문)이라 하는 기록¹⁾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場門(장문)이란 市浦(시포)가 처음 열렸다는 곳으로 영산강이 흐르는 지역으로 무안, 나주를 지칭한다. 『世宗實錄地理志』(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영산강 뱃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주가 나오는데 그 곳은 물산량이 풍부한 곳으로 장시가 발달하였다. 당시 人家는 상·농·어민이 섞여 200~300호 정도가 강 주변이 아닌 산 밑에 위치하였다.²⁾

하지만, 포구주변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 買入商(매입상)들이 들어오면서부터이며, 포구(영산포) 주변에는 주막이나 상가 등이 즐비하게 변화하였고, 종일 길손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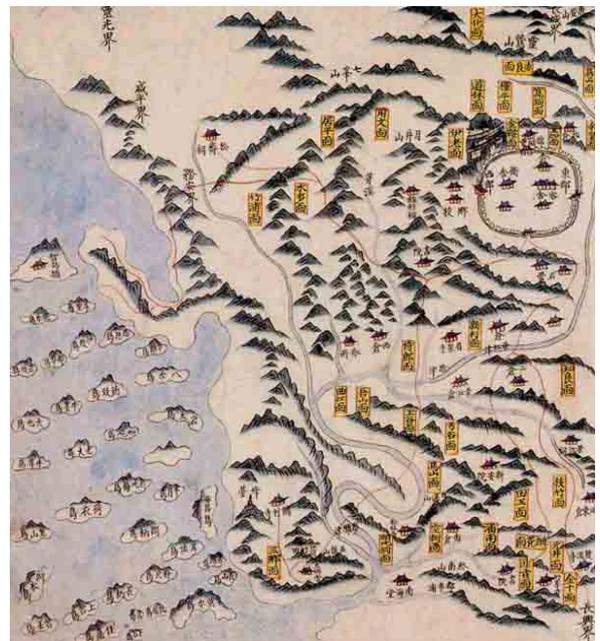


그림 1. 18세기 후반 해동지도(규장각)

1) 『中宗實錄』 권 8, 중종 4년 6월 갑자. “全羅道爲場門猶京之市也”

2) 高錫珪, 「영산강 뱃길 복원과 개발방향 학술대회」 『영산강과 남도문화』, 1998, pp.30~31.

3) 김경수, 『영산강 수운연구』, 고대석론, 1987, p.39.

2.2 교통의 발달

나주는 영산강의 상업중심지로 전라도의 상업거점 도시로 전라도 남부 17개 고을의 조세를 집결시켜 한 양으로 송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나주는 상선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상인들이 모여들어 상업도시로 번성했다.⁴⁾

1896년 목포가 개항되면서, 일본인들이 1902년경부터 상주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러·일전쟁(1905년) 이후 일인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⁵⁾ 1904년 목포~나주간의 교통은 조류관계에 맞춰 18시간 소요되었던 1904년 小形無動力船(소형무동력선) 2척이 전부였다. 이후, 1905년 대형 발동기선이 취항하고 1909년 항운회사가 들어서면서 수운에 활기를 띄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12년 광주~목포간 일등도로의 개통과 1914년 호남철도의 개통으로 수운은 육로 교통에 자리를 내 주었다.⁶⁾

3. 한식상가와 일식상가의 변천비교

3.1. 1900~1919년

나주목사가 광주로 옮겨가면서 동헌 자리에 나주 읍내장이 옮겨오게 되면서 읍내장을 중심으로 사매기 거리에 음식점, 상설점포, 여관 등 한식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한다.

반면 일본인은 호남 제1의 쌀 생산지인 나주평야에 미곡약탈과 식민수탈의 집결지로써 영산포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후, 중계무역을 위한 식민도구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상업중심지로 급격히 변화한다.

(1) 나주읍 한식상가

1) 상설시장 형성과 상설점포 건립

1896년 나주 단발령 사건을 계기로 관찰사가 광주로 옮겨가고, 동헌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읍내장이

들어섰다. 읍내장에서 북문으로 향하는 사매기 거리를 중심으로 과거 관청이 있던 자리에 조선 상인들은 상설점포, 음식점, 여관 등을 건립한다. 1900년 초 점포는 영세한 자본으로 안방 옆으로 조그만 점포를 내었다. 한 칸은 8尺(척)으로 하고 초가지붕의 치목하지 않은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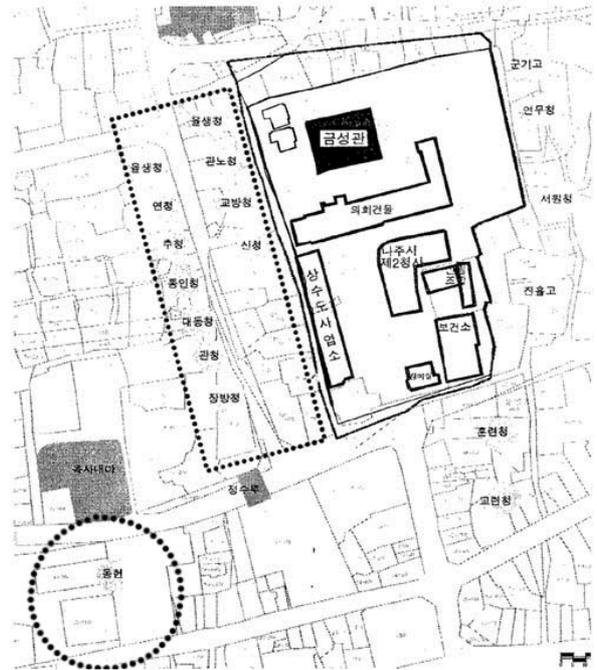


그림 2. 나주읍성 관청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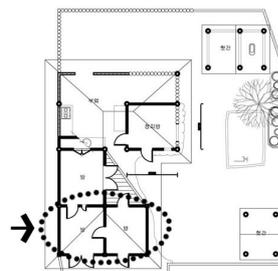


그림 3. 1900년초 점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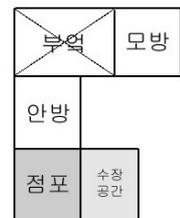


그림 4. 점포 개념도

2) 목재공급과 문화의 수용

1910년 안창리에 기와공장이 건립되면서 일식의 토기와의 보급된다. 또한 조선인은 러·일전쟁 이후 압록강의 벌목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값싸고 질 좋은 압록강 목재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1911년에는 일본에서 수입된 액수의 1.5배에 달하였다. 1907년 일본에서 상당수의 값싼 목재가 수입되었는데, 수입목은 가옥의 재료로 이용되었다.⁷⁾ 상설시장 주변의 일부 민가에서

4) 15세기 나주의 상업발전모습에 대한 『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을 보면 「나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고을의 하나로서 그 영역이 넓고 인구가 번성한데다가 또한 바다에 인접해 있고 벼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 하여 물자가 풍부하여 도안의 조세가 모여드는 요지로도 되어 사방으로부터 상인들과 나그네들이 분주하게 모여든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홍희유, 『조선상업사』, 백산자료원, p.140~145, 1989

5) 장석홍 『영산포의 일제식민기지의 형성』 1986 국민대석론 p.20

6) 김경수(1987) 앞의 석사논문 pp.4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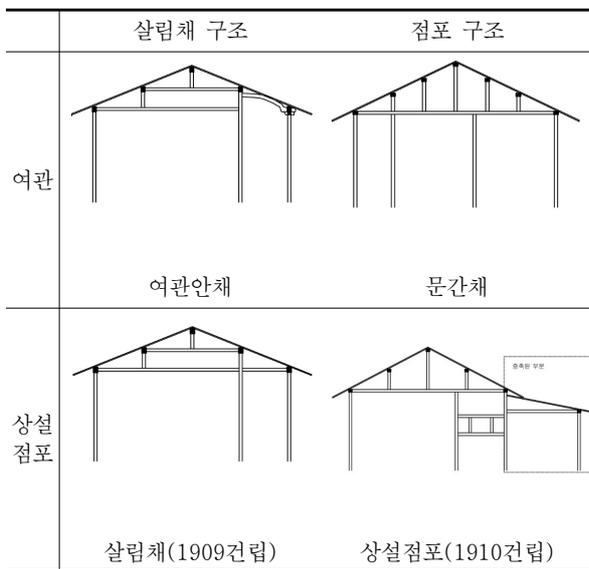
는 세장화된 일식문양(격자살)의 창호를 사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일식의 양식을 채용한다. 또한 1919년부터 나주지역의 민가에 즐기고 방식이 차츰 나타나기 시작한다.

3) 다양한 간잡이

가옥은 위계와 기능에 따라 채별로 크기를 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쓰이는 방에서도 크기를 다르게 한다. 가사제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살림채에서 기능에 따라 안방과 건넌방에서도 크기가 각각 7~10척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점포는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나는데 전면 8~10척, 측면은 9척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점포와 살림채의 구조



1906년 나주 읍내장 주변에 형성되는 한식상가는 일반 민가의 문간채를 상가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의 유형을 살림채와 견주하여 분류해 보면,

하나는 살림채의 구조재보다 가는 부재를 사용하여 개축한 경우로, 점포를 안채보다 격을 떨어뜨려 새로 신축한다. 이는 주로 객사 뒤편의 여관 등에서 볼 수 있는데, 모듈화된 단위공간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공간에 적합한 합리적 방식이라 판단된다.

또 다른 하나는 문간채를 증축한 경우로, 처마선 앞으로 점포를 확장한다.

(2) 영산포읍 일식상가

7) 이현창,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 『서울상업사』, 태학사, pp.403~404, 2000

1) 포구 주변 1~2층 상가 건립

영산포는 1902년 처음으로 한국과 가까운 長崎(나가사키), 熊本(쿠마모토), 山口(야마구찌), 岡山(오카야마), 멀리는 岐阜(기후), 福井(후쿠이) 등에서 일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 1906년부터 전남일대에 미국 陸地綿花(육지면화)의 재배를 대대적으로 보급함으로써 목포와 나주가 급성장하였다. 영산포 대부분의 상가는 下町(시타마찌:저지대 시가지, 상인과 직공이 많이 거주하는거리)를 형성하였다. 포구주변으로 담배가게, 여관, 주막(선술집), 요정, 정미소 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1913년 ‘거류지 제도’가 폐지되면서 영산포에 식민지수단인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포구주변이나 역주변 가까이 바둑판형식의 격자형 도로를 내고 구획을 나눠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1910년대 영산포 지역은 활성화되고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림 5. 영산포 포구주변 정미소

2) 규모에 따른 건축양식

1909년 농공은행의 연부대부를 받아 대부분 74%가 일본인 가옥의 건축비에 충당되었고 영산포 일본인 가옥의 건축비가 가장 비쌌던 점으로 보아 상당히 호화주택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⁸⁾ 일본인 주거도 규모에 따라 유형이 분류되는데, 구릉지에 續き間(쯔즈끼마)⁹⁾형과 屋敷(야시키)¹⁰⁾형의 대저택과, 포구를 중심으로 간단한 목조집 형태의 1층¹¹⁾~2층¹²⁾의 町屋

8) 김경수, 『영산강 유역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 박론, 2001.2. p.23.

9) 중하급 무사의 주택으로 대략 단층주택이며 모두 후스마로 연결되어 있는 쯔즈끼마(續き間)로 되어 있다.

10) 黒住猪太郎(구로즈미 이타로) 가옥

11) 마찌야(町屋)에서는 전면에 접하는 면을 최소로 하면서 도로와 수직방향으로 주거가 확장이 되어가면서 2~4겹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의 겹집구조나 양통집과는 차이가 있다.

12) 일본은 1700년경 에도(江戸)시대부터 인구가 100만명

(마찌야)로 나뉜다.

3) 町屋(마찌야)의 간잡이

일본에서 주거나 상가의 평면유형이 우리의 풍토나 기후와 상관없이 건립되었다. 상업과 교통의 발달로 형성되는 상인들의 주거인 「店家」(점가)에서 변형된 것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주택으로 도로에 면해 있으면서 고밀도의 상가영역과 주거영역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 2~3칸 형이다.

일본 마찌야의 한칸 크기는 근세 초기에 6척반~7척 사이이던 것이, 근세말기에 6척로 정착되는데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전면의 크기가 에도시대에 법적으로 町屋(마찌야)에서는 梁三間(양삼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3개의 방이 연속된 것으로 칸과 칸은 障子(쇼지), 板戸(나무문), 襖(후스마)¹³⁾ 등에 의한 것이며, 벽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간잡이된 공간에는 土間(토방), 板の間(마루방), 다다미방이 있다. 영산포의 일식상가는 2칸 규모가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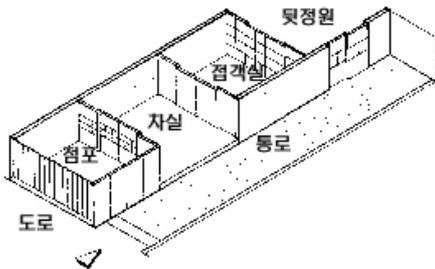


그림 6. 마찌야의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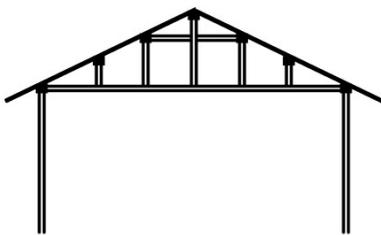


그림 7. 1910년대 야스키형 주거구조

을 넘어서 일본최대의 도시로 발전하면서 고밀하는 방안으로 겹집형태나 2층이 발달하였다. 이 시기 목재의 부족으로 목재를 길게 잘라 쓸 수 있는 톱과 대패가 나타나면서 부재 비례를 수량화하고 체계화, 규격화되었다.

太田博太郎 著, 박언곤역, 『일본건축사』, 발언, 1994, p.197~200.

13) 두꺼운 종이 또는 천을 양쪽에 바른 칸막이 문

4) 지붕가구구조

1910년대 일본인들은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일본의 주거나 상가를 그대로 건립하였다. 자재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했다. 이때 건립된 상가는 주거와 다르게 규모가 작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주로 건립되는 상가는 간이식 구조로 쓰였을 거라 추측된다. 반면 지주층의 가옥은 저택으로 7량의 小屋組(고야구미)¹⁴⁾형식의 지붕가구구조를 하고 있었다.

3.2. 1920~1929년대

(1) 나주읍 한식상가

1)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상업인구 증가

1920년대 식민지 정부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수리시설 확충과 신품종 벼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은 정체되어갔다.

18세기 초에 비해 1/10정도 수준으로 임금과 지대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임금이 정체된 것은 그만큼 농업종사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¹⁵⁾ 농업인구의 포화상태로 농

14) 에도시대때 이미 小屋組(고야구미)는 기둥과 별도로 동자주와 貫(누키)를 격자 상태로 결구하여 자유평면이 등장하게 된다. 明治유신 전후 개항이 되면서 서구의 과학기술이 일본에 도입되어 전통적인 목조건축의 기본이 유지되면서 서양의 구조법이 근대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림 8. 小屋組 중횡단면 (참조 : 官澤智士, 『日本列島民家入門』, INAX, 1993)

15) 차명수,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1700~2000』, 경제사학회, 2001. 5,

이와 관련한 1926, 11, 5 (동아일보). 기사내용

「전남 나주군 영산면 산정리에 잇는 동산 농장에서는 금년도 소작료를 평년보다 2, 3할을 무리하게 빚사게 조정하였으므로 동산 농장 소작인들은 이와가치 과도한 소작료를 내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가 동산 농장에 달녀가서 지금까지 벼를 베지 아니하였스니 소작료로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전부를 베여가던지 그러지 안호면 벼를 베어서 반씩 꼭 갖치 분배하자는 요구를 애원하였스나 추호의 동정이 업서 거절함으로 소작인들은 이에 대하여 대책을 강

업만으로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어 중·소농들은 부족한 경지와 식량을 충족하기 위해 비 농업활동으로 옮겨가게 되고 읍내장을 중심으로 소농의 가내공업과 상업인구로 유입되며 읍내장의 발전을 도모하였다.¹⁶⁾

농업인구가 상업인구로 유입해 읍에 따라 나주 읍내장 주변 상권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대지의 한정으로 점포를 병용하고 있는 주거는 고밀화 되어 갔다.

2) 한식상가의 활발한 건립

1910년대 나주 읍성 사매기 거리의 한식상가에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일본 간이식 구조법이 사라지고 1920년대 들어 상가 형성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1920년대 초 계속되는 목재의 남벌과 일본산 목재의 수입으로 목재공급의 과잉공급이 초래된다. 이로써 목재가격은 하락하고 사매기 거리는 한식상가 건립이 활발해지며 여러 구조적 실험과 1928년 중규모 상인들에 의해 2층 한식상가가 읍성 내에 건립되었다.¹⁷⁾

3) 점포 규모의 확대

1910년대 이전의 중소작농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인으로 전락하였다. 초기 방 1間(간)을 점포로 내거나 문간채를 개조하여 시작한 상업 활동이 이 시기에는 전업 상인으로 전락하면서 생활공간인 살림채 보다 상업공간인 점포에 비중을 두면서 전면의 점포가 더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3겹집이 발생되는데 보 방향의 間(간) 크기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가전면은 9尺 중간은 8尺 배면은 7척으로 각 공간구성에 따라 간의 크기도 다르다.

4) ‘평4주 7량가’ 와 ‘양통가’ 등장

대략 1920년대까지 겹집형태로 쓰이다가 1920년대 이후 양통집으로 가기 시작한다. 외부에서 보기에 평4주로 되어 있지만, 내부는 7량 구조의 양통 형태를 취한다. 겹집형태에서 양통으로 가는 변화단계를 나주 한식상가에서도 볼 수 있다.

1920년대 접어들어 산간내륙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양통집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방앗간이나 정미소 등의 용도로 나주의 한식상가에 지어졌다.

구하는 중이며 동산농장의 금년도 소작료가 너무나 무리하다하여 일반의 여론이 비등하다더라。」

16)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회지, p.84, 1996, 12

17) 동아일보 기사내용 1932, 1,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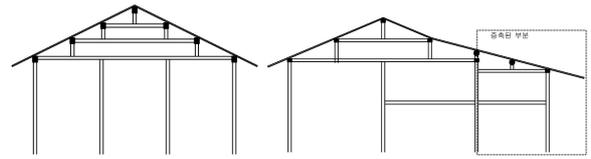


그림 9. 김봉수상가,1921 그림 10. 신귀임 상가,1928

(2) 영산포 일식상가

1) 4~5 겹집화

일식상가는 1910년대 건립된 영세한 계층의 町屋(마찌야)에서 1920년대 들어와 점차 자본력 있는 계층의 町屋(마찌야)¹⁸⁾가 건립된다. 공간의 깊이가 기존의 3겹에서 4~5겹의 깊이를 두고 건립되면서 중앙부 2~3간은 채광 및 개방성이 어려워져 채광용 솥을지붕을 내달았다. 이는 과거 공간배열과 크기, 의장 등 신분과 지역에 따른 규제조항이 메이지 이후 근대에 와서 신분제도가 붕괴되었지만 상당기간 이러한 의식이 잔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마찌야의 기본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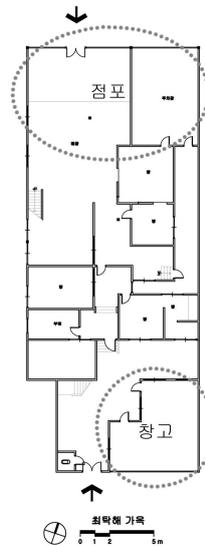


그림 11. 1925년 신축



그림 12. 실내에서 본 채광용 솥을지붕

3.3. 1930~1945년대

1929년 공황으로 인해, 조선경제는 일본의 팽창을 위한 전초 병참기지이자 자본수출시장으로서 전락한다. 1931년 만주사변이 도발하자 조선은 중화학공업의 군수기지로 사용된다.

1941년 임야 면적의 33%, 자원의 50%가 일본 수중

18) 최탁해 상가, 1925년 건립.

으로 들어갔으며, 삼림의 원목과 목재 등을 약탈하였고, 이어 일제 지배체제하 말기에는 거의 모든 임야와 자원이 급속히 고갈되었다.¹⁹⁾ 더군다나 선박제조용 목재의 공급을 위해 삼림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²⁰⁾

1930년대 조선인 자본 중 대규모 예속자본가의 자본액만이 일제의 비호 아래서 성장할 뿐, 중소 자본가는 1937년 이후 급격하게 몰락한다.²¹⁾

(1) 나주읍 한식상가

1) 한식상가의 침체

한식상가는 1933년을 기점으로 목재가격²²⁾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31년 9월 만주와의 전쟁으로 인한 목재 공급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²³⁾ 이 시기 한식상가조성은 공황과 더불어 침체의 길을 걸었다.²⁴⁾

이로 인하여 20년대 한식상가의 건립이 활발하였던 반면 30년대 들어 영세 상인이 밀집해 있는 한식상가는 목재가격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1~2채만이 건립되었을 뿐이다. 이 시기 건립되어지는 점포는 기존의 점포보다 규모나 부재의 크기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게 건립되었다.

2) 서양식 트러스 구조 등장

1934년에는 2만 2,990t의 고치를 생산하여 최고기록을 갱신한다.²⁵⁾ 이때 대공간을 요구하는 비단집이²⁶⁾

생겨났으며, 1930년대 사매기 거리에 정미소가²⁷⁾ 4곳이나 있었다.²⁸⁾ 이러한 대공간의 건물들은 한 칸의 크기가 10尺~12尺이었으며, 트러스 구조방식을 채택했다. 트러스를 가로지르는 보의 하부에는 버팀대를 기둥(130×130mm)에 고정하여 처짐을 막았다. 이 시기 자본이 집중되면서 전용상가가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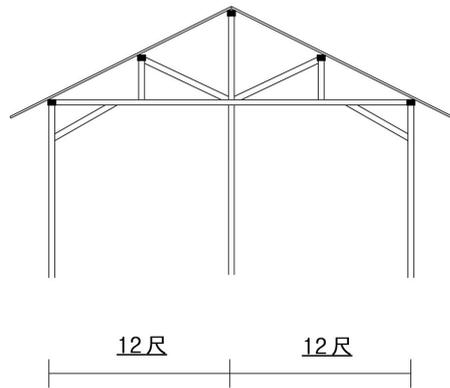


그림 13. 트러스 구조(정미소)

(2) 영산포읍 일식상가

1) 九州(큐슈)지방 양식의 일식상가

일본 자국 내에 공황과 조선의 병참기지화로 보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한다. 영산포는 일본에서 수입된 건축자재로 다수의 일식상가가 신축되면서 오히려 활기를 찾게 된다. 영산포 지역에 정착한 상인들은 대부분 큐슈지역 출신으로 그 지역의 건축문화를 유행시켰다. 다다미의 크기는 집의 형식과 양식을 구분 짓는 모퉁이 되는데, 그 모퉁이 또한 95cm로 큐슈지방의 것과 유사하다.

2) 중북도 발생과 중앙부로 계단실 이동

도로에 면해 있는 점포는 손님을 상대로 상업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안쪽까지 연결된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茶の間(차노마)와 취사장이 있고 대체로 화장실은 맨 후미에 위치한다. 영산포 町屋(마찌야)는 주로 2층에 座敷(자시키)²⁹⁾를 두었다.

19) 앞의 글, p.300.

20) 김석순, 『1920~1945년의 건축주재료인 목재와 벽돌이 생산사에 관한 비교연구』, 명지대 석론, pp.56~58, 1990.

21) 전석담, p.346, 2000

22) 4백여명의 야학생을 수용하는 나주노동 야학원 건립을 위해 쓰여진 노임이나 기타 들어가는 자금을 제외한 순수 목재구입 자금만 1931년 당시 천여 원이었다.

(참조 : 동아일보, 1931, 11, 25)

1931년 당시만 하여도 목구조로 지어지는 건물은 평당 50원 정도로 목재가격은 셌다. 그러나 1933년에 폭등하여 148원정도 지어진 건물도 있다. 단 건물마다 가격 차이는 있다. (참조 : 김석순(1990), p.95)

23) 김석순(1990), pp.66~67

24) 1936년 나주읍 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생활은 극히 곤란해진다. 1936년, 3, 17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전남 나주읍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3시경에 2세가량되는 유아를 품에 안고 30여세되는 부녀가 노상에서 죽어 있는 것을 동리 사람들이 발견하여 즉시 경찰서에다 알리었다는데 **에서는 분**를 대**현장에 급행하여 검시하여 본결과 천진난만스러운 유아와 부녀는 수 일 동안 기아를 못이겨 그와 같이 노상에서 *** *귀* 되었다」

25) 브리테니커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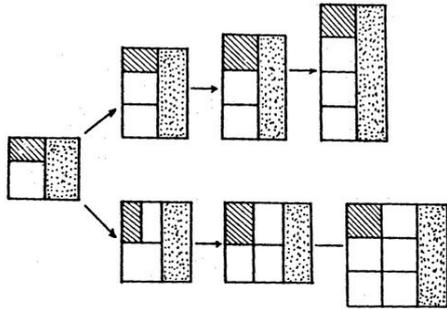
26) 일제때 비단집이었으나 해방 후 정미소로 활용 - 최윤희의 증언

27) 이강연 상가

28) 장군동(80세)氏 증언

29) 座敷(자시키)에는 정신적인 의미가 있다. 「자시키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라는 관념이 있다. 자시키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와 관계가 깊다. 2차대전 전까지 신분이나 집의 지위, 재산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1935년을 기점으로 도로와 수직방향으로 뺀 전형적인 町屋(마찌야)형태와 도로와 평행방향으로 뺀 변형된 형태, 이 두가지 유형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후 마찌야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도로와 수직방향으로 뺀 형태는 보이지 않고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 寢所

그림 14. 마찌야 평면의 진화
(자료 : 桑原稔(1978), 『住居の歴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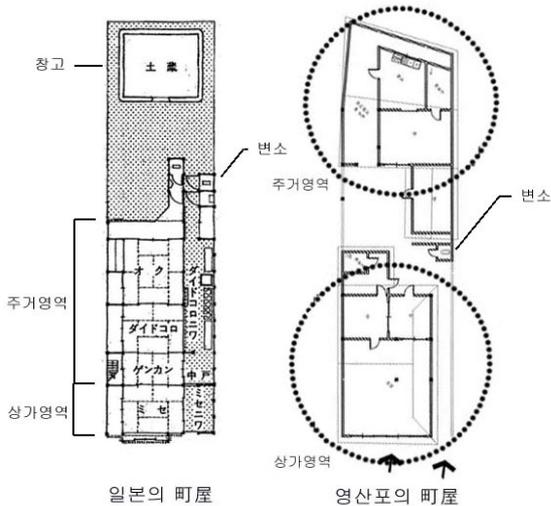


그림 15. 1935년 영산포의 전형적인 町屋

공간은 결혼이나 장례, 인생의례와 같은 하례의 무대로써 사용되었으며, 가문과 재산에 어울리도록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두었다. 자시키는 봉건적으로 집의 제도와 격식을 중시 여기는 분위기가 생활에 수반되는 많은 사람들의 접객이 필요했던 존재였다. 현재는 물론 이러한 신분이나 가문등의 사고는 희박해졌지만 그래도 자시키는 주거의 질을 표현하는 공간, 거주자의 인품이나 지위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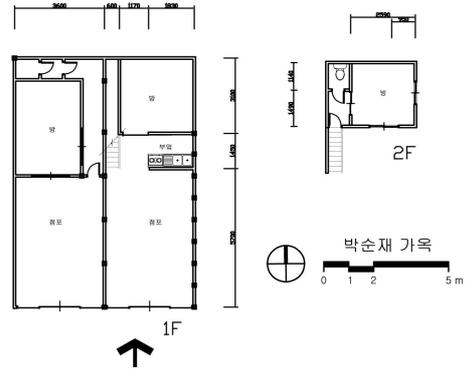


그림 16. 1935년 변형된 町屋

1923년 일본에 건설된 문화주택의 예로서 중복도가 생겨나면서 각 실의 독립성은 확보되었다.

영산포에 있는 町屋(마찌야)에서도 1940~1945년에서야 각 실의 독립성을 높여주는 중복도가 생겨난다. 1층은 가게나 茶の間(거실), 台所(부엌)등 생활공간이 위치하고, 집안 깊숙한 곳에 가족을 위한 차노마가 위치한다. 2층은 주로 접객실인 座敷(자시키)가 도로에 면하여 위치하고, 그 배면에 갖복도를 놓았다. 座敷(자시키)는 다다미방 두 개의 공간을 사용하였는데 그 경계에 襖(후스마)를 두어 필요에 따라 떼어내었다 붙였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3) 2층 변소등장

이 시기 봉건제의 상징인 座敷(자시키)가 있던 2층은 복도와 변소가 놓이게 되면서 생활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영산포의 일식상가 중 2층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던 곳은 1945년에 건립된 1곳뿐이었다. 2층의 화장실 보급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에서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본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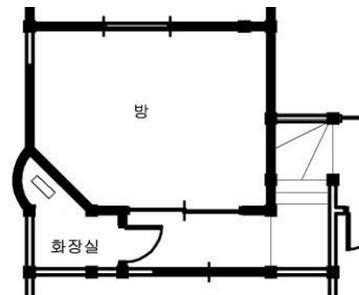


그림 17. 영산포 상가에 2층 변소 등장

30) 鈴木 成文 著, 이현희 易, 『현대일본주거읽기』, 도서출판국제, p,17~20.

4) 1930년대 - 트러스구조와 5량의 간이식구조 혼용
 1930년대 일본인들은 서구의 목구조 결구법을 끌어 들여 나름대로 구조방식을 채택하였다. 트러스 구조가 처음 보급되며 5량의 간이식구조가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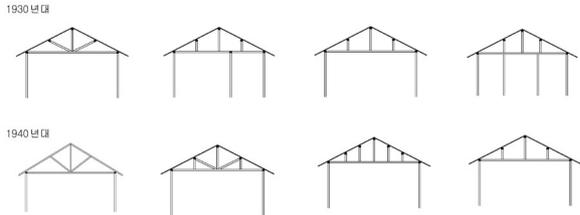


그림 18. 영산포 일식상가 구조변화

5) 1940~1945년대 - 7량구조와 트러스구조
 1940년대 들어 트러스 구조가 완성적 단계에 들어서며 7량구조로 점포가 확대되었다. 또한 가운데 기둥을 없애 버리면서 공간이 확장되면서 町屋(마찌야)의 기본적 형태는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산포에서의 트러스는 30년대 초기 조금씩 쓰이다 40년대가 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5. 결론

1897년 10월 1일 목포가 개항되고 영산강을 통해 곡창지대인 나주를 침탈의 중간기지로 삼고자 일본인들은 1902년부터 영산포 포구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옮겨 놓으며 정착한다. 나주 읍내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식상가는 일식상가와 대응하며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나주 읍성안 사매기 거리의 한식상가와 영산포읍 일식상가의 변천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00-1919년대

나주목사가 광주로 옮겨가면서 동헌자리에 나주 읍내장이 옮겨오게 되면서, 읍내장을 중심으로 사매기 거리에 음식점, 상설점포, 여관 등이 들어서기 시작한 다. 반면 목포가 개항이 되고 나주 영산포에 長崎(나가사키), 熊本(쿠마모토), 山口(야마구찌), 岡山(오카야마)로부터 이주해온 일본인들은 포구주변에 여관, 주막, 요정, 정미소 등 격자형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1920-1929년대

1920년대 나주 사매기 거리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목재의 남벌과 일본산 목재의 수입으로 목재공급이 과잉하여, 목재가격은 하락했다. 이로 인해, 한식상가 건립이 활발해진 사매기 거리에는 「평4주 7량가」, 「양통가」 등 새로운 구조의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영산포에는 도로면으로부터 4~5겹 깊이의 일식상가 건물이 건립된다.

1930-1945년대

세계공황으로 인해 조선은 병참기지로 변모하게 되고, 대규모 예속자본가만이 성장할 뿐, 중 소 상인들은 급격하게 몰락한다. 1931년 만주전쟁으로 인해 1933년 목재가격은 상승한다. 1930년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식상가 건립은 1~2채 뿐이었다.

일본 자국 내에 공황과 조선 병참기지화로 많은 일본인 들이 영산포로 이주해 왔다. 1935년을 기점으로 일식상가 규모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간 확장유형과 구조방식이 다양화된다. 일식상가는 가로에 접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각 실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도가 생겨난다. 또한 의식공간으로 쓰였던 2층 자시키는 생활공간으로 바뀌면서 변소를 설치한다.

한식상가와 일식상가의 발전과정은 상대적이다. 일본인은 조선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부를 축적하였다면, 조선인은 압박을 당하며 침체하였다. 반대로 조선 상인들의 역동적 해방운동은 자생력이 강해지면서 발전해 간 반면, 일본인들은 반대로 유희정책을 펴면서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적 중심에 서려는 노력은 표면적으로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 및 광주학생 운동에서 보였으며, 건축적으로도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면서 상가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예속의 관계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상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양상호, 『2층 한옥상가에 관한 사적연구』, 명지대 석론, 1985.
2. 장석홍, 『영산포의 일제식민기지의 형성』, 1986 국민대석론
3.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4. 김경수, 『영산강 수운연구』, 고대석론, 1987.
5. 宮澤智士, 『日本列島民家入門』, INAX, 1993.
6. 太田博太郎 著, 박언곤 易, 『일본건축사』, 발언, 1994.

안 국 진

7. 홍희유, 『조선상업사』, 백산자료원, 1989.
8.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회지, 1996. 12.
9. 김석순, 『1920~1945년의 건축주재료인 목재와 벽돌이 생산사에 관한 비교연구』, 명지대 석론, 1990.
10. 고석규, 「영산강 뱃길 복원과 개발방향 학술대회」 『영산강과 남도문화』, 1998.
11. 이현창,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12. 전석담·최윤규 지음, 김인호 옮김, 『근대 조선 경제의 진로』, 아세아문화사, 2000.
13. 김경수, 『영산강 유역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 박론, 2001.2.
14. 차명수,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1700~2000』, 경제사학회, 2001. 5.
15. Edward s. Morse, 『Japanese home and their surroundings』, Dover publications,INC, 1961
16. 鈴木 成文 著, 이현희 易, 『현대일본주거읽기』, 도서출판국제.

논문접수일 (2011. 5. 2)

심사완료일 (1차 : 2011. 5. 23, 2차 : 해당없음)

게재확정일 (2011. 5. 30)